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研究

윤보현* · 박성식*

Abstract

The Study On The 『Dongyi Sasang Shinpyun』

Youn Bo-hyun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1.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Dongyi Sasang Shinpyun』 was published in 1929, it had great effects on the publications related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owever there had been no practical research or its applications about 『Dongyi Sasang Shinpyun』 at all in spite of its importance. So through the study on the 『Dongyi Sasang Shinpyun』 we highly intend to utilize the book.

2. Methods

In this dissertation, you'll find our research of 『Dongyi Sasang Shinpyun』 regarding the author,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publishing, the formations and the contents, our another research of 『Dongyi Sasang Shinpyun Chebang』(東醫四象新編劑方) to make its medic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clear.

3. Results and Conclusion

- 1) Won Chi Sang was Chang Bong Young's granduncle's son-in-law. Nam Dae-hee is suspected of Nam Tae-hee who lived in Yeosu Bam Gol at that time though, it's not certain.
- 2) 『Dongyi Sasang Shinpyun』 is consisted of two parts. 『The Internal part』 is the basic explanation and 『The External part』 is the prescriptions depending on the symptoms. 『Sasang Byunron』(四象辯論) is mostly that's for the explanations about analysis of Sasang Constitution. 『Sasang Kyunghum』(四象經驗) is mainly it's for the prescriptions depends on Sasang's symptoms. 『Sasang Kukyul』(四象口訣), 『Tong Sasang Changbu Sochaedo』(通四象臟腑所在圖), 『Tong Sasang Chunchu Sosokdo』(通四象全體所屬圖) are about the analysis of Sasang's characteristics from metaphysical concepts to Changbustic concepts. In 『Sasangin Yoyak』(四象人藥), among them, 10 types of medicines were categorized separately by constitutional difference in 『Dongui Sasang Shinpyun』 and 『Dongmu Youg o』(東武遺稿). The unique style of 『Dongyi Sasang Yongyak Huebun』(東醫四象用藥象分) is originated from 『Banyak Happyun』 『Euibang Whaltu』(『方藥合編』 『醫方活套』), 『Whaltu Chimsun』(『方藥合編』 『活套鍼線』).
- 3) There are 293 prescriptions in 『Dongyi Sasang Shinpyun Chebang』. 36 out of 44 prescriptions in 『Gapobon』(甲午本) are quoted in 『Kyunghumbang』. Therefore it could be very possible that those unknown prescriptions in 『Kyunghumbang』 can be from Lee Je Ma.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윤보현 주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 광동한방병원 전화)2222-4869 E-mail)goldenlake@hanmail.net

- 4) We are assumed that 『Dongyi Sasang Shinpyun』 was made by some other doctors not from one single person, based on Lee Je Ma's prescriptions, after Lee Je Ma died.
- 5) 『Dongyi Sasang Shinpyun』 is very different from 『Dongeyi Suse Bowon』, 『Dongmu Yougo』(東武遺稿). 『Chobonkwun』(草本卷) by Lee Je Ma since it was published for utilizi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medical practice not for the basic principles of Sasang Constitution by Lee Je Ma. Therefore it could be highly possible to look over the spirit of Sasang Constitution by Lee Je-ma.

Key Words : Dongyi Sasang Shinpyun, Won Chi Sang, Chang Bong Young, Nam Dae Hee, Lee Je Ma, Donggeui Suse Bowon, Gapobon, Chobonkwun, Dongmu Yougo, Bangyak Happyun

I. 緒論

「東醫四象新編」¹⁾은 1929年 元持常에 의해 發行된 以後 四象醫學 關聯 臨床書籍들에 至大한 影響을 주어 後世 醫家들이 大部分 이러한 類型을 따르고 있으며, 使用處方까지도 同一하게 引用되고 있을 정도로(이에는 朴奭彦의 「東醫四象大典」²⁾, 李道耕의 「家庭必備 四象要覽」³⁾, 朴寅商의 「東醫四象要訣」⁴⁾, 廉泰煥의 「東醫四象處方集」⁵⁾ 등이 있다.) 四象醫學史上 看過할 수 없는 醫學書籍이 되었다. 그 理由는 「東醫四象新編」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編制方式」 및 「四象處方 病證 分類方式」의 獨特性 때문일 것이다.

「東醫四象新編」의 編制 方式은 三統으로 나누어 記載하는 方式을 취했는데, 이러한 處方 記載 方式의 淵源은 黃度淵의 『方藥合編』, 『醫方活套』⁶⁾에서 찾을 수 있다. 「方藥合編」, 「醫方活套」는 臨床에서 매우 효과 좋은 處方만을 골라 上中下 三段階로 分類하고 이를 三統이라 稱하였는데 對投의 便易 때문에 이 著書는 臨床家들이 多用하는 參考書籍이 될 수밖에 없었다.⁷⁾ 四象醫學 部分에서도 이와 같이 臨床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簡便 處方集으로 만들어진 書籍이 「東醫四象新編」이라 볼 수 있다.

「東醫四象新編」의 四象處方 病證 分類方式은 기존 四象醫學 關聯 醫書에 없던 內容들이다. 「東醫壽世保元」¹⁰⁾에는 四象醫學의 獨특한 病證 分類方式에 依據하여 處方 別 適應症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四象醫學的 病證 分類方式은 臨床에서 쉽게 活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當時 臨床醫師들이 익숙한 病證 分類方式으로 再編할 必要性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東醫四象新編」은 「方藥合編」, 「活套鍼線」⁶⁾의 病證 分類方式에 依據하여 四象處方이 配置되어있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에 記錄된 것과 同一한 處方인데도 「東醫四象新編」에서는 臨床醫師들이 익숙한 病證 分類方式으로 適應症 分類가 再編되어있는 것이다.

이처럼 「東醫四象新編」은 「東醫壽世保元」이나 「東武遺稿」⁸⁾, 「四象醫學 草本卷」⁹⁾ 등 東武 李濟馬가 직접 著述한 記錄과는 다른 意味를 가지며, 四象醫學의 證治醫學的 應用임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東醫四象新編」이 갖는 이러한 意味에 비해 現在까지 四象臨床에서 「東醫四象新編」의 內容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受容해야 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研究된 바는 없었다.

이에 著者는 「東醫四象新編」의 出版과 關聯된 人物, 「東醫四象新編」의 編制 및 內容, 「東醫四象新編」의 「東醫四象新編劑方」에 대한 研究를 통하여 몇 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本 論文에서 參考한 書籍은 다음과 같다.

- 1) 「東醫四象新編」은 1929年 文友社에서 刊行된 것¹⁾을 基準으로 하였다.(이하 「四象新編」이라고 한다.)
- 2) 「東醫壽世保元」은 1994年 驪江出版社에서 刊行된 것¹⁰⁾을 基準으로 하였다.(이하 「壽世保元」이라고 한다.)
- 3)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李聖洙 소장의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¹¹⁾을 基準으로 하였다.(이하 『甲午本』이라고 한다.)

- 4) 『東武遺稿』는 1999年 海東醫學社에서 刊行된 것⁹⁾을 基準으로 하였다.
- 5) 『方藥合編』 『醫方活套』와 『方藥合編』 『活套鍼線』은 1996年 南山堂에서 刊行된 것⁶⁾을 基準으로 하였다.
- 6)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은 1999年 圖書出版 鼎談에서 刊行된 것⁹⁾을 基準으로 하였다.(이하 『草本卷』이라고 한다.)
- 7) 『東醫寶鑑』은 1998年 南山堂에서 刊行된 것¹²⁾을 基準으로 하였다.

2. 『四象新編』의 出版과 關聯된 人物들에 대한 研究는 拙者의 論文¹³⁾과 ‘原州元氏 族譜’¹⁴⁾ ‘元持常의 女息인 원용사의 證言’(이분은 1918年 生으로서 現 83歲인데, 元持常이 餘生을 보냈던 경기도 여주군 내사리에 거주하고 있다.) 및 ‘丹陽張氏 族譜’¹⁵⁾ ‘張鳳永의 長子인 月田(盤龍山人) 張遇聖의 證言’(이분은 1912年 生으로서 現 89歲인데, 韓國을 代表하는 元老 東洋畫家이다. 서울대 美術대학 교수를 역임한 후, 現在 藝術院 正會員이면서 月田美術館을 運營하고 있다.)을 基礎로 하였으며, 여기에 關聯 資料의 收集 및 기타 生存人物들의 證言을 追加하여 이루어 졌다.

3. 『四象新編』의 『東醫四象新編序』(以下 『序文』이라고 한다.), 『跋』(以下 『跋文』이라고 한다.), 『東醫四象新編凡例』(以下 『凡例』라고 한다.), 『東醫四象新編目錄』(以下 『目錄』이라고 한다.), 『四象辯論』, 『四象經驗』, 『四象口訣』, 『通四象臟腑所在圖』, 『通四象全體所屬圖』, 『太陽人藥設方』, 『經驗方目錄』, 『東醫四象新編劑方』(以下 『四象劑方』이라고 한다.) 部分은 『壽世保元』 및 『甲午本』 『草本卷』과 比較를 하여 內容上의 特徵을 研究하였고, 『四象人藥』 部分은 『東武遺稿』와 比較하여 차이점을 研究하였으며, 『東醫四象用藥彙分』(以下 『用藥彙分』이라고 한다.) 部分은 『東醫寶鑑』 및 『方藥合編』 『醫方活套』, 『方藥合編』 『活套鍼線』과 比較를 하여 編制上의 特徵과 病證 分類의 特徵을 研究하였다. 또한, 『四象新編』 末尾에 記錄된 『海松子論』, 『葛茸論』, 『血

餘論』은 本 論文의 研究對象에서 除外하였다.

4. 『四象劑方』 部分에서 太陰人 處方은 ‘TE.1’부터 ‘TE.95’까지, 少陰人 處方은 ‘SE.1’부터 ‘SE.106’까지, 少陽人 處方은 ‘SA.1’부터 ‘SA.90’까지, 太陽人 處方은 ‘TA.1’부터 ‘TA.2’까지 任意의 番號를 順序대로 매겼다.

5. 本 論文 內容 中 張仲景이라고 한 것은 『壽世保元』의 『張仲景 傷寒論中(太少陰陽人病) 經驗設方』을 말하며, 宋元明은 『壽世保元』의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六方』을 말한다. 元明은 『壽世保元』의 『元明 二代醫家 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을 말하며, 唐宋明은 『壽世保元』의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을 말한다.

또한, 新定方은 『壽世保元』의 『新定(太少陰陽人病) 應用要藥』을 말하며, 太陽人 經驗要藥이라고 한 것은 『壽世保元』의 『本草所載 太陽人病 經驗要藥 單方十種 及 李挺 龔信 經驗要藥 單方二種』을 말한다.

III. 本 論

1. 著者인 元持常에 대한 研究

元持常은 原州元氏 侍中公系 元益謙의 25世孫으로 初名은 壹益 常, 字는 德必, 號는 成庵이며 毅岩 柳麟錫 先生의 門人이었다. 3男2女 中の 長男으로 高宗 乙酉年(1885年)에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出生하여 78歲되는 1962年(陰曆)에 死亡하였으며 경기도 여주군 내사리에 안장되었다. 柳麟錫은 朝鮮後期 性理學系의 分派中 華西學派¹⁶⁾에 속하며 李恒老의 斥邪思想을 전수 받아 이를 乙未獨立運動으로 實踐 해간 人物이다.^{17,22)} 이러한 衛正斥邪 思想은 柳麟錫을 통하여 元持常에게도 傳受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醫學的인 分野에 있어서, 元持常이 어떠한 經路로 四象醫學을 접하게 되었으며, 또한 東武 李濟馬와 交流가 있었는지 與否는 確認할 수 없었다. 『四象新編』은 45歲되는 1929年에 出版하였는데 1928年 10月 21日에 張鳳永이 序文을 쓰고, 11月 12日에 南大熙가 跋文을 썼으며, 12月 30日에 印刷를

하여, 1929年 1月 18日에 發行하였다. 解放後인 61歲 경부터 여주군 내사리 所在의 本家 사랑채에서 書堂을 열어 漢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실제적으로 韓藥房을 運營하며, 본격적인 四象體質治療를 始作한 것은 6·25 戰爭 以後부터의 若10年間 정도였다.

2. 序文을 쓴 張鳳永과跋文을 쓴 南大熙에 대한 研究

張氏의 宗派에는 結城, 求禮(鳳城), 羅州, 丹陽, 德水, 木川, 扶安, 順天, 安東, 永同, 禮山, 沃溝, 蔚珍, 仁同, 金川, 浙江, 知禮, 鎭安, 昌寧, 青松, 興城(興德), 興陽이 있다. 各 宗派의 族譜를 參考하여 張鳳永이라는 人物을 探索한 結果, 丹陽張氏 族譜¹⁾에서 附合되는 人物을 찾을 수 있었다<그림1>. 여기에 記錄된 內容은 <표1>과 같다. 이러한 記錄들에 의하면, 張鳳永은 丹陽張氏 提學公派 張貞弼의 32世孫이 된다.

또한, 張鳳永과 元持常의 關係를 밝히기 위해 原州元氏 族譜와 丹陽張氏 族譜를 比較 研究한 結果 서로 친인척 關係임을 알 수 있었는데, 자세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原州元氏 族譜에는 “元持常의 셋째 婦人은 丹陽張氏이며 이 婦의 父는 通政宗祐, 祖는 嘉善龍汲, 曾祖는 昌翊, 外祖는 密陽朴이다.”(配丹陽張氏 辛卯六月十六日生 父通政宗祐 祖嘉善龍汲 曾祖昌翊 外祖密陽朴)라고 記錄되어있다. 이 部分을 丹陽張氏 族譜와 比較하면, 正確하게 一致한다.<표 1, 2>

표 1. 張鳳永의 家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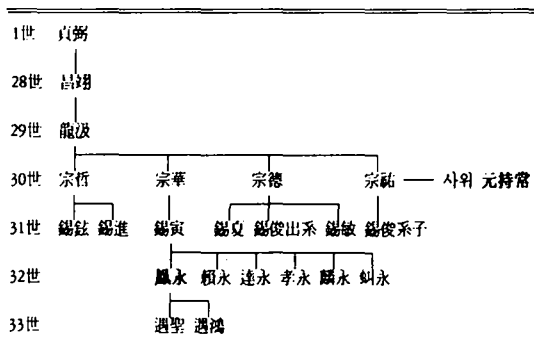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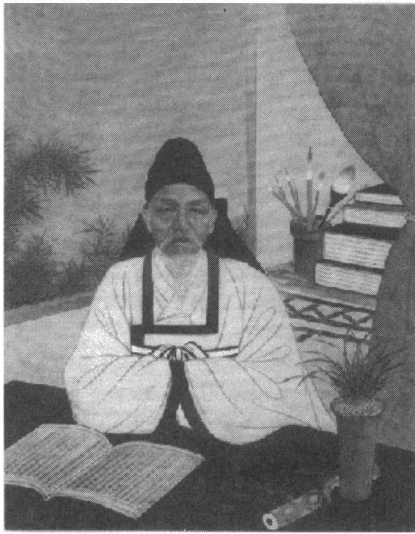


표 2. 丹陽張氏 族譜의 內容中 原州元氏 族譜와 서로 일치하는 部分

28世	昌翊
29世	龍汲 ; 贈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龍驤衛副護軍
30世	宗祐 ; 贈 通政大夫, 配淑夫人密陽朴氏 父在旭
31世	錫寅 ; 錦溪李先生根元門人
32世	鳳永 ; 初諱壽永 字周瑞 號 一齊 天賦英達 深於河洛之理 明於經濟之學 丁未之亂 雲崗李公康年 倡義討倭 以親命參謀於將所 與廣菴李公奎顯 直堂申公鉉國 耻齋李公敏膺 爲道義之交

따라서, 張鳳永의 從祖父의 사위가 元持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丹陽張氏 提學公派 張貞弼의 30世孫인 宗祐의 사위가 元持常이고, 30世 宗華의 孫子가 張鳳永이 되는 것이다.<표1> 丹陽張氏 族譜의 記錄에 依據하여 生存人物들을 수소문 한 결과 張鳳永의 長子인 月田(龍盤山人) 張遇聖을 만날 수 있었다. 月田 張遇聖의 證言에 의하면, 산을 사이에 두고 元持常이 경기도 여주군 내사리에 거주하였고, 張鳳永은 외사리에 거주하였는데, 元持常과 張鳳永이 친인척 관계이면서 서로 年輩가 비슷하여 往來가 잦았다고 한다. 張鳳永의 初諱는 壽永, 字는 周瑞, 號는 一齊이다. 高宗壬午(1882年) 十月二十七日 出生하여 戊子(1948年) 九月一日에 死亡하였으며,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에 안장되었다. 元持常이 高宗乙酉(1885年)生이므로, 張鳳永이 元持常보다 3살 연상이 된다. 張鳳永의 父인 張錫寅은 元持常의 父인 元世臣과 마찬가지로, 錦溪 李根元의 門人으로서 衛正斥邪論에 依據한 排日思想에 철저히하여, 斷髮令을 거부하고 死亡할 當時까지 長髮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張鳳永 또한 傳統 性理學의 思想을 實踐한 人物으로써, 多方面에 博學多識하였는데, 그 중의 一部分이 韓醫學이었다고 한다. 月田 張遇聖의 證言에 의하면, 사랑채에 조그마한 韓藥櫃이 있었으며, 대구 약령시 소재의 “김홍조 한약방”에서 藥材를 공급받았다고 한다. 月田 張遇聖은 元持常이 『四象新編』을 發行하기 전까지는 韓醫學에 대해 문외한이었다고 證言하였다. 또한, 『四象新編』이 元持常의 創作品이 아니고, 『四象新編』이 出版되기 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書籍이 存在하였는데, 이를 原本으로 하여 元持常이 『壽世保元』의 內容을 追加한



후 再編輯하여 『東醫四象新編』이라는 冊名을 붙여 發行하였을 可能性이 크며, 이 過程에서 韓醫學에 造詣가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張鳳永에게 序文을 부탁했을 거라고 推測을 하였다. 이러한 證言은 月田 張遇聖이 16歲되던 해인 1928年에 張鳳永이 序文을 썼으며, 月田 張遇聖이 19歲가 될 때까지 외사리 소재의 本家에서 張鳳永과 함께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元持常 및 元世臣하고도 교류가 잦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妥當성이 있는 證言일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張鳳永도 『四象新編』을 發行하고 난 후부터 四象醫學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때 이후부터 “咸鏡道の 李濟馬”, “四象體質” 등의 言及을 종종하였는데, 張鳳永 자신은 太陰人, 月田 張遇聖은 少陰人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月田 張遇聖의 기억에 의하면 跋文을 쓴 栗下散人 南大熙는 當時 여주군 밤골에 살았던 南台熙일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3. 東醫四象新編의 編制 및 內容에 대한 研究

1) 東醫四象新編 序 및 跋

『四象新編』의 「序文」은 張鳳永에 의해 陰曆 1928年 9月 8日(歲戊辰菊月秋甲午) 쓰여졌다. 月田 張遇聖은 張鳳永이 『四象新編』을 發行하고 난 이후에 四象醫學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序文」 內容에는 “東醫四象新編을 出刊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序文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역시 뜻이 있었으나

하지 못하고 있던 일이었으므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東醫四象新編 將刊行于世 囑予以弁首 予亦有意焉而莫能 因不敢辭)”라고 하여, 張鳳永이 『四象新編』 出刊 前부터 四象醫學에 조예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日前에 號 成庵, 字 德必, 이름 元持常이라는 분이 … 壽世保元과 比較 選別하여 內外篇으로 나눈 후 이름을 東醫四象新編이라고 하였다.(日元成菴德必甫 … 選其壽世語 分爲內外篇 名之曰東醫四象新編)”라는 內容이 있는데, 이 句節을 통하여 『四象新編』의 著者가 元持常이라는 것과 『四象新編』을 編纂할 때 크게 內外編으로 分類한 후 細部 作業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拙丹山人 張鳳永”이라는 文句는 “丹山張氏 사람인 張鳳永”으로 解釋하는게 妥當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拙”字 의 解釋이 문제가 된다.

跋文은 序文이 쓰여지고 나서 약 1個月 後인 陰曆 1928年10月1日(歲戊辰十月一日) 南大熙에 의해 쓰여졌다. 南大熙는 먼저 ‘唐虞’, ‘舜禹’, ‘孔子’, ‘孟子’, ‘周濂溪’, ‘張橫渠’, ‘程子’의 業績을 讚揚한 후 (方以儒道唐虞授受 只說執中 舜禹之際兼說人心道心 至于孔子 有仁說而已 孟子兼說四端 始養浩然之氣 千百年後 周濂溪出無極之說 張橫渠教人以禮爲先 程子主持敬之功) “『四象新編』이라는 作品이 醫家에 큰 공로를 세운 것 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此新編之作 大有功於醫家者 亦猶是焉)”라고 하여 『四象新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2) 東醫四象新編凡例 및 東醫四象新編目錄

「凡例」의 內容은 「用藥彙分」의 使用法을 例文提示와 함께 說明한 部分인데, 이렇게 使用法을 따로 說明한 이유는 『四象新編』의 構成方式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形式이므로 使用法에 대한 附加의인 說明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目錄」의 內容은 內篇과 外篇으로 나누어 記錄된 『四象新編』의 編制 順序를 정리한 目次이다.

內篇은 原理編에 해당되는 部分으로서 「四象辯論」, 「四象經驗」, 「四象口訣」(「四象口訣」이라는 編名은 「目錄」 部分에 記錄되어 있지 않다.) 「通四象臟腑所在圖」, 「通四象全體所屬圖」, 「四象人要藥」이라는 項目이 設定되어 있다. 이중 「四象辯論」은 『壽世保元』의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醫源論」, 「

표 3. 四象辯論, 通四象臟腑所在圖, 通四象全體所屬圖의 原文引用횟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醫源論	廣濟說	辨證論
四象辯論		12	4		1		37
通四象臟腑所在圖				1			
通四象全體所屬圖				4			
總計	0	12	4	5	1	0	37

(한 條文이 여러 編에서 중복 引用된 경우 複數로 計算하였다.)

四象人 辨證論에서 內容을 引用하고 「性命論」, 「廣濟說」은 引用하지 않았는데, 이는 元持常이 『四象新編』의 活用目標을 原理論의인 理解보다는 實用的인 使用에 重點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推測된다<표 3>. 또한, 「四象經驗」은 『壽世保元』의 「太少陰陽人 病證論」에서 內容을 引用하였다.

外篇은 活用編에 해당되는 部分으로서 「用藥彙分」, 「太陽人用藥」, 「經驗方 目錄」, 「四象劑方」, 「經驗方」, 「附海松子論 葛茸論 血餘論」이라는 項目이 設定되어있다.

3) 四象辯論과 四象經驗

「四象辯論」은 總28條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壽世保元』의 「四端論」, 「擴充論」, 「醫源論」, 「四象人 辨證論」에서 內容을 拔萃해 왔는데, 「四端論」 12회, 「擴充論」 4회, 「醫源論」 1회, 「辨證論」 37회의 頻度로 引用을 하였다. 일부 條文은 『壽世保元』의 原文을 그대로 引用하지 않고, 太少陰陽人의 體形氣像, 性質 材幹, 形貌, 臟腑大小, 性情, 性氣, 病證에 대해 「辨證論」, 「四端論」, 「擴充論」에서 條文을 拔萃 組合하여 한 文章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다. 『壽世保元』의 原文을 引用하면서도, 新用語를 使用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各 體質을 동물에 比유하여 說明한 것인데, 太陽人을 龍之性, 太陰人을 牛之性, 少陰人을 驢之性, 少陽人을 馬之性 이라고 表現하였다. 또한, 太陽人에서 使用된 容貌方圓 및 少陽人에서 使用된 唇頰淺薄도 新用語에 해당된다.

「四象經驗」은 『壽世保元』의 「太少陰陽人 病證論」에서 內容을 引用하였는데, 「太陰人 病證論」에서 21회, 「少陰人 病證論」에서 35회, 「少陽人 病證論」에서 34회, 「太陽人 病證論」에서 2회 引用하였으며, 表裏病證에 대한 區分없이 記述하고 있다<표4>. 「四

象經驗」에서는 『壽世保元』의 內容 中 疾患의 原因, 診斷名, 治療途中 患者의 狀態變化, 病解後의 管理法, 使用處方에 대한 부수적인 說明, 調養攝生法 等 全體의인 患者管理 部分은 大部分 削除하고 病證과 使用處方 爲主로만 引用하였다. 이것은 『四象新編』의 出版 目的이 症狀에 따른 편리한 處方 運用に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四象經驗」의 內容 中 「四象新編」을 出版하는 過程이나 『壽世保元』의 內容을 引用하는 過程에서 誤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部分들이 多數 發見되는데, 이중 代表의인 것만 簡略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少陽人 得頭痛身熱表寒病 用黃連瓜蒌羌活防風等屬 少愈 三日後 發狂讒語 用地黃白虎湯 連三貼 翌日 加石膏一兩 至七八貼用後始愈

[분석] 『壽世保元』에서는 “病勢가 전에 비하여 꽤히 덜하고 회복되었더니 불행하게도 병이 조금 나은데서 부주의로 더하여지고 생각이 완치하는 데까지周密하지 못하여서 이 사람을 마침내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白虎湯을 적게 使用하였기 때문에 生명을 구하지 못하고, 治療에 실패한 경험담을 記錄하고 있다. 하지만, 「四象經驗」에서는 “至七八貼用後始愈”라고 하여 治療에 성공한 것으로 잘못 引用하였다.

(2) 少陽人 上消中消下消 百之百必死也 用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분석] 『壽世保元』에서는 “만약 陰이 虛하여 乍熱 飲水背寒而嘔하면 表裏陰陽이 함께 虛損된 것이니 그 까닭에 그 病이 더욱 險하여 下消와 輕重이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었을때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을 使用하라고 되어있다. 또한, “몸과 마음을 잘 調攝하고 藥을 먹으면 10에 6-7은 오히려 살

아날 수 있을 것이나 몸과 마음을 잘 調攝하지 않고 藥을 먹지 않으면 100에 100 다 죽는다.”라고 하여, 治療가 가능한 疾患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四象經驗」에서는 消渴病은 百之百必死라고 하면서, 通治方으로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을 提示하고 있다. 이는 『壽世保元』을 引用하는 過程에서의 誤謬로 생각된다.

- (3) 少陽人 瘧病有間兩日發者 卽勞瘧也 不發日 用 獨活地黃湯 二貼 發日 用荊防敗毒散 二貼 待 惡寒發作時連二貼 一月內 用獨活地黃湯 四十 貼 荊防地黃湯 二十貼

[분석] 『壽世保元』에서는 “1個月 內에 獨活地黃湯 40貼과 荊防敗毒散 20貼을 目標로 하고 쓴다.”라고 되어있는데, 「四象經驗」에서는 “1個月 內에 獨活地黃湯 40貼과 荊防地黃湯 20貼을 쓴다.”로 되어있다. 이는 「四象經驗」 編纂過程에서의 誤謬이며, 荊防地黃湯대신 荊防敗毒散으로 바꾸는 게 妥當하다고 본다.

4) 四象口訣, 通四象臟腑所在圖, 通四象全體所屬圖

「四象口訣」과 「通四象臟腑所在圖」, 「通四象全體所屬圖」의 內容은 四象人의 主要한 特徵을 形而上學的 概念부터 臟腑의 概念까지 간략히 정리한 후, 이를 暗記하기 쉽도록 圖表化 한 것이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形而上學的 概念을 說明하기 위해 「四象口訣」에서 四象人의 形貌, 臟腑, 性情, 病證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記錄하였다.

둘째, 臟腑의 概念을 說明하기 위해 「通四象臟腑所在圖」에서 四象人의 臟腑構造를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로 구분하여 간략히 圖表化하였다.

셋째, 全體的인 觀點을 보여주기 위해 「通四象全體所屬圖」에서 四象人의 臟腑와 기타 人體構造와의 關係를 四象의 概念으로 간략히 記述하여 놓았다.

5) 四象人要藥과 太陽人 要藥設方

「四象人要藥」과 「太陽人要藥設方」에는 四象人 要藥으로 太陰人藥 111種, 少陰人藥 72種, 少陽人藥 83種, 太陽人藥 10種, 總276種의 藥物이 記錄되어있으며, 太陽人 設方으로 2處方이 記錄되어있는데, 이렇게 四象人別 藥物分類를 體系의으로 圖表化 한 것은 『東武遺稿』이후에 『四象新編』에서 처음으로 記錄하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四象人要藥」의 四象人別 藥物分類를 『東武遺稿』의 分類와 比較하였는데, 『四象新編』과 『東武遺稿』가 相異하게 分類한 藥物은 “糯米, 小麥, 竹茹, 石油, 松花, 鬱金, 紅花, 檳榔, 柴胡, 青松節”의 10種類가 있었다. 또한, 太陽人 設方 部分에서 “杵頭糖 主噎食 咽喉塞”이라고 記錄한 部分은 『壽世保元』의 “李挺曰 杵頭糖 主噎食 不下 咽喉塞 細糖一兩 白粥清調服” 部分을 잘못 引用한 것으로 思料된다.

6) 東醫四象用藥彙分

「用藥彙分」의 編制方式은 『四象新編』의 가장 큰 特徵中的 하나이다.

總四段으로 나누어 最上段에는 病證을 記述한 후 堅看할 수 있도록 하였고, 上統에는 太陰人 方藥, 中統에는 少陰人 方藥, 下統에는 少陽人 方藥을 收錄하여 橫看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三統으로 나누어 記述한 體質別 處方의 構成 內容은 「四象劑方」에 收錄되어있다. 이러한 三統 分流 編制方式의 淵源은 『方藥合編』, 『醫方活套』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最上段에는 49個의 大病證과 226個의 小病證을

표 4. 四象經驗의 東醫壽世保元 引用횟수

體質	區分(引用 횟수)		總計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5)	肝受熱裡熱病論(16)	21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10)	胃受寒裡寒病論(14) 泛論(11)	35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17)	胃受熱裡熱病論(6) 泛論(11)	34
太陽人	外感腰脊病論(1)	內觸小腸病論(1)	2

(2條文이 『壽世保元』의 1개 條文에서 引用된 경우, 1번 引用한 것으로 計算하였다.)

記述하였다. 『東醫寶鑑』¹²⁾의 病證分類 方式과 「用藥彙分」 「大病證」의 分類體系를 比較하면 『東醫寶鑑』 「內景篇」에서 共通되는 項目이 10項目(精, 氣, 神, 血, 聲音, 津液, 痰飲, 蟲, 小便, 大便), 『東醫寶鑑』 「外形篇」에서 共通되는 項目이 18項目(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胸, 乳, 腹, 腰, 脇, 皮, 手, 足, 前陰, 後陰), 『東醫寶鑑』 「雜病篇」에서 共通되는 項目이 21項目(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虛勞, 霍亂,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 癘疾, 邪祟, 癰疽, 諸癰, 婦人, 小兒)이며 『東醫寶鑑』 「湯液篇」 및 「

鍼灸篇」에서는 共通되는 項目이 없었다. 『方藥合編』 「活套鍼線」과 「用藥彙分」의 病證 分類方式을 比較하면 「大病證」의 分類方式에 있어서 『方藥合編』 「活套鍼線」에는 總53項目의 「大病證」이 있고, 「用藥彙分」 「大病證」에는 總49項目의 「大病證」이 있는데 이중 共通되는 「大病證」은 總48項目이다. 『方藥合編』 「活套鍼線」에는 있으나 「用藥彙分」 「大病證」에 없는 것으로는 “身形, 夢, 頸項, 背, 諸瘡”이 있으며, 「用藥彙分」 「大病證」에는 있으나 『方藥合編』 「活套鍼線」에 없는 것으로는 “諸癰”이 있다. 「小病證」의 分類

표 5. 東醫四象用藥彙分 內에서 太陰人 處方의 使用頻度

順位	處方名	使用頻度	處方數
1위	太陰調胃湯(TE.1)	48회	1處方
2위	淸肺瀉肝湯(TE.19)	31회	1處方
3위	熱多寒少湯(TE.18)	30회	1處方
4위	淸心蓮子湯(TE.15)	23회	1處方
5위	調胃續命湯(TE.9) 葛根解肌湯(TE.11)	13회	2處方
6위	調胃升清湯(TE.12)	11회	1處方
7위	石菖蒲遠志散(TE.42)	9회	1處方
8위	腎氣調胃湯(TE.10) 補肺元湯(TE.29) 如神炷(TE.53)	8회	3處方
9위	葛根承氣湯(TE.24) 牛黃淸心元(TE.45)	7회	2處方
10위	葛茸大補湯	6회	1處方
11위	升氣調胃湯(TE.6) 鹿茸人補湯(TE.32) 麝香散(TE.41) 三神散(TE.43) 滾痰湯(TE.55) 二門五味湯(TE.59)	5회	6處方
12위	菖蒲透邪湯 升芷調胃湯(TE.5) 經驗調胃湯(TE.7) 麻黃定痛湯(TE.17) 蘿蔔子承氣湯(TE.26) 熊膽散(TE.40)	4회	6處方
13위	拱辰黑元丹(TE.31) 乾栗梲根皮湯(TE.38)	3회	2處方
14위	定神瀉肝湯(TE.20) 葛根大承氣湯(TE.25) 山藥補肺元湯(TE.30) 古本浮萍湯(TE.35) 生脈散(TE.49) 二聖救苦丸(TE.50) 祛風解語散(TE.56) 千金文武湯(TE.57) 明日散(TE.60) 三黃散(TE.62) 保胎飲(TE.64) 文武保胎飲(TE.65)	2회	12處方
15위	大承氣湯 西氏玉容散 萬應膏 李氏調胃湯 藥本黃栗白芷散 調胃承氣湯 調胃脈元湯 承氣湯 無憂膏 神異膏 調中湯 一依二消分治 神聖餅 花惜調胃湯(TE.2) 升芩調胃湯(TE.8) 麻黃定喘湯(TE.16) 寒多熱少湯(TE.21) 潤肺淸肝湯(TE.23) 調理肺元湯(TE.27) 麻黃發表湯(TE.28) 葛根浮萍湯(TE.34) 葛茸浮萍湯(TE.36) 乾栗梲湯(TE.37) 瓜蒂散(TE.39) 麥門冬遠志散(TE.44) 黑奴丸(TE.47) 退黃飲(TE.51) 立效散(TE.52) 歸腎一擦光(TE.54) 萬金文武湯(TE.58) 補肺通乳散(TE.61) 大黃散(TE.63) 李氏承氣湯(TE.66)	1회	33處方
16위	葛根蘿蔔子湯 雲母膏 麻黃調胃湯(TE.3) 固氣調胃湯(TE.4) 經驗升淸湯(TE.13) 杏仁升淸湯(TE.14) 蟬蟻散毒散(TE.22) 皂角大黃湯(TE.33) 石菖蒲遠志散(TE.46) 李氏黑奴丸(TE.48) 麻黃金水湯(TE.67) 解肌大安湯(TE.68) 升麻開腦湯(TE.69) 天門冬潤肺湯(TE.70) 鹿茸大造湯(TE.71) 吉更生脈散(TE.72) 淸心山藥湯(TE.73) 皂角二黃湯(TE.74) 浮萍大黃湯(TE.75) 吉更梲根皮湯(TE.76) 黃栗固氣湯(TE.77) 黃栗五味子膏(TE.78) 牛黃山藥元(TE.79) 麥門冬湯(TE.80) 杏仁麥門冬湯(TE.81) 四時丹(TE.82) 蒼苴仁調胃湯(TE.83) 大黃梲根皮湯(TE.84) 加味淸心湯(TE.85) 加味寒少湯(TE.86) 吉更湯(TE.87) 加減淸心湯(TE.88) 三黃石仁散(TE.89) 安蛔飲(TE.90) 加味調胃湯(TE.91) 吉更湯(TE.92) 烏梅煎(TE.93) 龍肉調胃湯(TE.94) 千金調胃湯(TE.95)	0회	39處方

總計 ; 112 處方

方式에 있어서 『方藥合編』 「活套鍼線」에는 總611項目의 「小病證」이 있고, 『用藥彙分』 「小病證」에는 總226項目의 「小病證」이 있으며, 共通되는 「小病證」은 總193項目이다. 이 중 『方藥合編』 「活套鍼線」에는 있으나 『用藥彙分』 「小病證」에 없는 것이 298項目이며, 『用藥彙分』 「小病證」에는 있으나 『方藥合編』 「活套鍼線」에 없는 것이 27項目이다. 따라서, 『用藥彙分』 最上段의 病證 分類方式은 『方藥合編』 「活套鍼線」의 病證 分類方式 중에서 필요한 部分만 選別取捨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症狀 別 四象 處方 活用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上統에서는 『四象新編』에 收錄된 總112個의 太陰 人 處方中 73個의 處方을 各 病證別로 記述하였는데, 太陰 人 處方의 使用頻度를 살펴보면 太陰 調胃湯 (TE.1) 48회, 淸肺瀉肝湯(TE.19) 31회, 熱多寒少湯 (TE.18) 30회, 淸心蓮子湯(TE.15) 23회, 葛根解肌湯 (TE.11) 調胃續命湯(TE.9) 13회의 順으로 多用되었다

표 6. 東醫四象用藥彙分 內에서 少陰 人 處方의 使用頻度

順位	處方名	使用頻度	處方數
1위	八物君子湯(SE.13)	40회	1處方
2위	補中益氣湯(SE.6)	35회	1處方
3위	十全大補湯(SE.15)	29회	1處方
4위	十二味寬中湯(SE.24)	20회	1處方
5위	香砂養胃湯(SE.22)	16회	1處方
6위	祛風散(SE.21)	13회	1處方
7위	獨參八物湯(SE.16) 白何烏付子理中湯(SE.42)	11회	2處方
8위	養朮寬中湯(SE.28)	10회	1處方
9위	川芎桂枝湯(SE.9) 巴豆丹(SE.31) 藜香正氣散(SE.91)	9회	3處方
10위	白何烏理中湯(SE.43) 理中湯(SE.47)	8회	2處方
11위	人參附子理中湯 當歸香蘇散(SE.10) 赤白何烏寬中湯(SE.23) 蘇合香元(SE.55)	7회	4處方
12위	李氏補中益氣湯 溫白元(SE.63)	6회	2處方
13위	香付子八物湯(SE.18) 附子理中湯(SE.36) 芎歸葱蘇理中湯(SE.39) 寬中湯(SE.45) 如意丹(SE.68)	5회	5處方
14위	升陽益氣湯(SE.5) 三味參黃湯(SE.61) 鋼陰胎(SE.70) 保命飲(SE.71)	4회	4處方
15위	寬中丸 星香正氣散(SE.12) 桂枝半夏生薑湯(SE.20) 當歸白何烏寬中湯(SE.26) 桂附芫陣理中湯(SE.38) 吳茱萸付子理中湯(SE.40) 赤巴煎(SE.72) 壽脾解語湯(SE.84)	3회	8處方
16위	仁參十二味寬中湯 橘皮一物湯 白朮散 人參白何烏寬中湯(SE.25) 鷄參符(SE.30) 人參陳皮湯(SE.33) 仁參桂皮湯(SE.34) 何烏官桂理中湯(SE.48) 木香順氣散(SE.54) 香蘇散(SE.56) 香砂六君子湯(SE.69) 仁參散(SE.74) 唐橘湯(SE.83) 正氣天香湯(SE.86) 如神湯(SE.88)	2회	14處方
17위	八物湯 何烏八物湯 人參桂枝付子湯(SE.2) 升陽益氣付子湯(SE.3) 人參官桂付子湯(SE.4) 九味惜花湯(SE.7) 秘傳香蘇散(SE.11) 人參吳茱萸湯(SE.35) 四逆湯(SE.50) 茵陳四逆湯(SE.58) 茵陳付子湯(SE.59) 茵陳橘皮湯(SE.60) 瘧疽丸(SE.64) 蒜密符(SE.73) 煖肝散(SE.79) 硫黃散(SE.80) 牽正散(SE.82) 七氣湯(SE.85) 甘橘煎(SE.87) 巴豆符(SE.89) 砂仁散(SE.93)	1회	21處方
18위	巴豆如意丹 人參附子理中湯 獨參湯 仁參桂枝湯 黃芪桂枝付子湯(SE.1) 黃芪桂枝湯(SE.8) 白何烏君子湯(SE.14) 升陽八物湯(SE.17) 香附十全湯(SE.19) 五靈脂寬中湯(SE.27) 蒜蜜湯(SE.29) 溫化丹(SE.32) 獨參官桂理中湯(SE.37) 肉豆久附子理中湯(SE.41) 三白理中湯(SE.44) 桂枝湯(SE.46) 薑付湯(SE.49) 赤石脂禹餘糧湯(SE.51) 大補湯(SE.52) 回陽大補湯(SE.53) 桂枝付子湯(SE.57) 露靈散(SE.62) 三稜消積丸(SE.65) 秘方化滯丸(SE.66) 三物白散(SE.67) 如意針(SE.75) 如意刀(SE.76) 不遂飲(SE.77) 溫中飲(SE.78) 金蛇酒(SE.81) 加味八物湯(SE.90) 星香正氣散(SE.92) 黃芪蘇葉湯(SE.94) 健脾壯胃湯(SE.95) 補益固氣湯(SE.96) 官桂獨參八物湯(SE.97) 養朮破積湯(SE.98) 香砂理中湯(SE.99) 獨參理中湯(SE.100) 桂枝葱蘇理中湯(SE.101) 仁參鷄栗湯(SE.102) 獨參良朋湯(SE.103) 鷄參符(SE.104) 蘇子導痰湯(SE.105) 當歸溫中湯(SE.106)	0회	45處方

總計 ; 118 處方

<표5>. 使用되지 않은 處方中 葛根蘿菥子湯과 雲母膏는 「用藥彙分」 및 「四象經驗」에 處方名은 있으나 「四象劑方」에 處方 內容이 없는 것들이며, 麻黃調胃湯을 비롯한 37個 處方은 「四象劑方」에 處方 內容이 있으나 「用藥彙分」에서 使用되지 않은 處方들이다(本 論文에서는 「用藥彙分」 內에 收錄된 各 處方의 使用頻度를 計算할 때 「用藥彙分」의 腦門, 皮門, 前陰門의 陰腫陰痒, 婦人門의 子癇 子煩 子腫 子淋 子嗽 子痢 子瘡 子瘡 傷寒 血暈 血崩 衄血 咳嗽 不語 陰脫 泄瀉 便秘 浮腫 鬱冒 風痲, 小兒門의 癩癩 諸熱 吐瀉 感冒 疾喘 泄痢 腹痛 腹脹 丹毒 諸

瘡에서 使用된 횟수는 計算하지 않았다. 또한, “異名同處方”에 해당하는 處方들은 處方名을 各各 記錄하지 않고 1個의 處方名만 記錄하였는데, 太陰人의 升芎調胃湯과 少陽人의 少陽補胃湯을 제외하고는 모두 「四象劑方」에 記錄된 處方名을 基準으로 하였다. 使用 횟수 역시 合算하여 記錄하였다.).

中統에서는 『四象新編』에 收錄된 總118個의 少陰人 處方中 73個의 處方을 各 病證別로 記述하였는데, 少陰人 處方의 使用頻度를 살펴보면 八物君子湯(SE.13) 40회, 補中益氣湯(SE.6) 35회, 十全大補湯(SE.15) 29회, 十二味寬中湯(SE.24) 20회, 香砂養胃湯

표 7. 東醫四象用藥彙分 內에서 少陽人 處方의 使用頻度

順位	處方名	使用頻度	處方數
1위	荊防地黃湯(SA.9)	44회	1處方
2위	涼膈散火湯(SA.20)	42회	1處方
3위	六味地黃湯(SA.41)	30회	1處方
4위	荊防敗毒散(SA.1)	24회	1處方
5위	獨活地黃湯(SA.8)	15회	1處方
6위	荊防導白散(SA.4) 十二味地黃湯(SA.17) 地黃白虎湯(SA.18)	13회	3處方
7위	豬苓車前子湯(SA.6) 陽毒白虎湯(SA.19)	12회	2處方
8위	導赤降氣湯(SA.3)	8회	1處方
9위	輕粉乳香沒藥丸(SA.31)	7회	1處方
10위	滑石苦參湯(SA.7) 牧丹地黃湯(SA.13) 忍冬藤地骨皮湯(SA.21) 朱砂益元散(SA.26) 甘遂天一丸(SA.27) 李氏涼膈散(SA.40)	6회	6處方
11위	生熟地黃湯(SA.15) 李氏肥兒丸(SA.45) 贊化丹(SA.84)	5회	3處方
12위	木通無憂湯(SA.16) 輕粉甘遂龍虎丹(SA.28) 催生散(SA.51)	4회	3處方
13위	十二味歸腎湯 黃連導白散(SA.5) 熟地黃苦參湯(SA.22) 水銀煎鼻方(SA.47) 鹽砂散(SA.48) 歸腎解語湯(SA.54)	3회	6處方
14위	荊防導赤散(SA.2) 乳香沒藥輕粉丸(SA.30) 消毒飲(SA.46) 新小柴胡湯(SA.55) 新大柴胡湯(SA.56) 保胎地黃湯(SA.62)	2회	6處方
15위	朱砂散 防風天花粉散 前胡地黃湯(SA.10) 黃連地黃湯(SA.12) 降火地黃湯(SA.14) 木通大安湯(SA.23) 黃連清腸湯(SA.24) 荊芥清腸湯(SA.25) 白虎湯(SA.32) 黃連豬肚湯(SA.38) 涼膈散(SA.39) 花惜地黃湯(SA.42) 豚卵散(SA.49) 點眼散(SA.50) 大甘遂散(SA.52) 小甘遂散(SA.53) 降陰白虎湯(SA.58) 通乳歸腎湯(SA.61)	1회	18處方
16위	肥兒丸 玄參地黃湯(SA.11) 輕粉甘遂雌雄丹(SA.29) 黃白虎湯(SA.33) 豬苓湯(SA.34) 五苓散(SA.35) 四苓散(SA.36) 腎氣丸(SA.37) 生地黃湯(SA.43) 李氏導赤散(SA.44) 玄參白虎湯(SA.57) 表症白虎湯(SA.59) 地黃玄武湯(SA.60) 玄參敗毒散(SA.63) 防風通聖散(SA.64) 千金導赤散(SA.65) 柴胡瓜萎湯(SA.66) 柴胡四苓湯(SA.67) 單白虎湯(SA.68) 渡海白虎湯(SA.69) 錦上添花白虎湯(SA.70) 豬苓白虎湯(SA.71) 八味苦參湯(SA.72) 七味豬苓湯(SA.73) 八味豬苓湯(SA.74) 水火既濟湯(SA.75) 清涼散火湯(SA.76) 木通苦參湯(SA.77) 柴胡清腸湯(SA.78) 白虎湯衍(SA.79) 白虎益元散(SA.80) 小陽補胃湯(SA.81) 地黃敗毒散(SA.82) 地黃湯(SA.83) 加味地黃湯(SA.85) 加味散化湯(SA.86) 加味白虎湯(SA.87) 兩儀煎(SA.88) 薄荷煎(SA.89) 加味地黃湯(SA.90)	0회	40處方

總計 ; 94 處方

(SE.22) 16회의 順으로 多用되었다<표6>. 使用되지 않은 處方中 巴豆如意丹 人蔘附子理中湯 獨蔘湯 仁蔘桂枝湯은 「用藥彙分」 및 「四象經驗」에 處方名은 있으나 「四象劑方」에 處方 內容이 없는 것들이며, 黃芪桂枝付子湯을 비롯한 41個 處方은 「四象劑方」에 處方 內容이 있으나 「用藥彙分」에서 使用되지 않은 處方들이다.(本 論文에서는 仁蔘桂枝湯의 使用 횟수와 仁蔘桂枝湯의 使用 횟수를 各各 달리 計算 하였다.)

下統에는 『四象新編』에 收錄된 總94個의 少陽人 處方中 54個의 處方을 各 病證別로 記述하였는데, 少陽人 處方의 使用頻度を 살펴보면 荊防地黃湯 (SA.9) 44회, 涼膈散火湯(SA.20) 42회, 六味地黃湯 (SA.41) 30회, 荊防敗毒散(SA.1) 24회, 獨活地黃湯 (SA.8) 15회의 順으로 多用되었다<표7>. 使用되지 않은 處方 中 肥兒丸은 「用藥彙分」 및 「四象經驗」

에 處方名은 있으나 「四象劑方」에 處方 內容이 없는 것이며, 玄蔘地黃湯을 비롯한 39個 處方은 「四象劑方」에 處方 內容이 있으나 「用藥彙分」에서 使用되지 않은 處方들이다.

4. 東醫四象新編劑方에 대한 研究

「四象劑方」部分에서는 「四象經驗」, 「用藥彙分」, 「經驗方 目錄」部分에 記述된 處方들의 方劑構成을 上中下 三統으로 나누어 記錄하고 있는데, 上統에는 太陰人 處方 95개, 中統에는 少陰人 處方 106개, 下統에는 少陽人 處方 90개를 記錄하고, 太陽人 處方은 「四象劑方」 앞쪽의 「太陽人 要藥設方」部分에서 說明하고 있다.

「處方의 出典」을 살펴보면 全體的으로는 『壽世保元』에서 引用한 것이 146處方, 『甲午本』에서 引用한

표 8. 東醫四象新編劑方에 收錄된 處方의 出典 目錄別 引用 頻度

體質	出典				總計
	壽世保元	甲午本	出典未詳	草本卷	
太陰人	36	12	47		95
少陰人	66	14	26		106
少陽人	41	18	30	1	90
太陽人	2				2
總計	145	44	103	1	293

표 9. 東醫四象新編劑方에 收錄된 太陰人 處方의 出典 分析

出典	處方名	總計
壽世保元	1.太陰調胃湯 4.固氣調胃湯 8.升芎調胃湯 12.調胃升清湯 15.清心蓮子湯 16.麻黃定喘湯 17.麻黃定痛湯 18.熱多寒少湯 19.清肺瀉肝湯 20.定神瀉肝湯 21.寒多熱少湯 22.蟾蜍敗毒散 23.潤肺清肝湯 24.葛根承氣湯 25.葛根大承氣湯 27.調理肺元湯 28.麻黃發表湯 29.補肺元湯 30.山藥補肺元湯 31.拱辰黑元丹 32.鹿茸大補湯 33.皂角大黃湯 34.葛根浮萍湯 37.乾栗蟾蜍湯 38.乾栗栲根皮湯 39.瓜蒂散 40.熊膽散 41.麝香散 42.石菖蒲遠志散 44.麥門冬遠志散 45.牛黃清心元 46.石菖蒲遠志散 47.黑奴丸 48.李氏黑奴丸 49.生脈散 50.二聖救苦丸	36 방
甲午本	11.葛根解肌湯 經驗方 (11방) 69.升麻開腦湯 70.天門冬潤肺湯 71.鹿茸大造湯 72.吉更生脈散 73.清心山藥湯 74.皂角三黃湯 75.浮萍大黃湯 76.吉更栲根皮湯 77.黃栗固氣湯 78.黃栗五味子膏 79.牛黃山藥元	12 방
出典未詳	2.花惜調胃湯 3.麻黃調胃湯 5.升芷調胃湯 6.承氣調胃湯 7.經驗調胃湯 9.調胃續命湯 10.腎氣調胃湯 13.經驗升清湯 14.杏仁升清湯 26.蘿藦子承氣湯 35.古本浮萍湯 36.葛茸浮萍湯 43.三神散 51.退黃飲 52.立效散 53.如神炷 54.歸腎一擦光 55.滾痰湯 56.祛風解語散 57.千金文武湯 58.萬金文武湯 59.二門五味湯 60.明目散 61.補肺通乳散 62.三黃散 63.大黃散 64.保胎飲 65.文武保胎飲 66.李氏承氣湯 經驗方 (18방) 67.麻黃金水湯 68.解肌大安湯 80.麥門冬湯 81.杏仁麥門冬湯 82.四時丹 83.薏苡仁調胃湯 84.大黃栲根皮湯 85.加味清心湯 86.加味寒少湯 87.桔更湯 88.加減清心湯 89.三黃石仁散 90.安蛔飲 91.加味調胃湯 92.桔更湯 93.烏梅煎 94.龍肉調胃湯 95.千金調胃湯	47 방

것이 44處方, 出典未詳인 것이 102處方, 『草本卷』에서 인용한 處方이 1處方이다<표8>. 이중 「經驗方」에 收錄된 處方들의 出典을 분석하면 太陰人에 있어서는 『甲午本』에서 11處方, 出典未詳에서 18處方이 引用되었고, 『壽世保元』에서는 引用된 處方이 없다<표9>. 少陰人에 있어서는 『甲午本』에서 8處方,

出典未詳에서 5處方이 引用되었고, 『壽世保元』에서는 引用된 處方이 없다.<표10> 少陽人에 있어서는 『甲午本』에서 17處方, 出典未詳에서 10處方이 引用되었고, 『壽世保元』에서는 引用된 處方이 없다<표11>. 이를 통하여 「四象劑方」에 收錄된 處方中 「經驗方」으로 分類되어있는 處方들은 大部分 『甲午

표 10. 東醫四象新編劑方에 收錄된 少陰人 處方의 出典 分析

出典	處方名	總計
壽世保元	1.黃芪桂枝附子湯 2.仁蔘桂枝附子湯 3.升陽益氣附子湯 4.人蔘官桂附子湯 5.升陽益氣湯 6.補中益氣湯 7.九味惜花湯 8.黃芪桂枝湯 9.川芎桂枝湯 10.當歸香蘇散 13.八物君子湯 14.白何烏君子湯 15.十全大補湯 16.獨蔘八物湯 18.香附子八物湯 20.桂枝半夏生薑湯 22.香砂養胃湯 23.赤白何烏寬中湯 24.十二味寬中湯 29.蒜蜜湯 26.當歸白何烏寬中湯 27.五靈脂寬中湯 25.人蔘白何烏寬中湯 30.鷄蔘膏 3.白何烏理中湯 33.人蔘陳皮湯 34.人蔘桂皮湯 35.人蔘吳茱萸湯 36.附子理中湯 40.吳茱萸附子理中湯 42.白何烏附子理中湯 31.巴豆丹 45.寬中湯 46.桂枝湯 47.理中湯 48.何烏官桂理中湯 49.藪附湯 50.四逆湯 51.赤石脂禹餘糧湯 52.大補湯 54.木香順氣散 55.蘇合香元 56.香蘇散 57.桂枝附子湯 58.茵陳四逆湯 59.茵陳附子湯 60.茵陳橘皮湯 61.三味蔘黃湯 62.辟瘟散 63.溫白元 64.瘰癧丸 65.三棱消積丸 66.秘力和滯丸 67.三物白散 68.如意丹 69.香砂六君子湯 70.陰險胎 71.保命飲 72.赤已煎 73.蒜蜜膏 74.人蔘散 75.如意針 76.如意刀 77.不遂飲 81.金蛇酒 91.藿香正氣散	66 방
甲午本	17.升陽八物湯 37.獨蔘官桂理中湯 38.桂附霍亂理中湯 39.芎歸葱蘇理中湯 44.三白理中湯 53.回陽大補湯 經驗方 (8방) 94.黃芪蘇葉湯 95.建脾壯胃湯 98.葦朮破積湯 99.香砂理中湯 100.獨蔘理中湯 102.仁蔘爲粟湯 103.獨蔘良朋湯 104.鷄蔘膏	14 방
出典未詳	11.秘傳香蘇散 12.星香正氣散 19.香附十全湯 21.祛風散 28.豨虵寬中湯 32.溫化丹 41.肉豆蔻附子理中湯 78.溫中飲 79.煖肝散 80.疏黃散 82.牽正散 83.唐橘湯 84.瀉脾解語湯 85.七氣湯 86.正氣天香湯 87.甘橘煎 88.如神湯 89.巴豆膏 90.加味八物湯 92.星香正氣散 93.砂仁散 經驗方 (5방) 96.補益固氣湯 97.官桂獨蔘八物湯 101.桂枝葱蘇理中湯 105.蘇子導痰湯 106.當歸溫中湯	26 방

표 11. 東醫四象新編劑方에 收錄된 少陽人 處方의 出典 分析

出典	處方名	總計
壽世保元	1.荊防敗毒散 2.荊防導赤散 3.導赤降氣湯 4.荊防導白散 6.猪苓車前子湯 7.滑石苦蔘湯 8.獨活地黃湯 9.荊防地黃湯 10.前胡地黃湯 11.玄蔘地黃湯 12.黃連地黃湯 13.救丹皮地黃湯 14.降火地黃湯 15.生地地黃湯 16.木通無憂湯 17.十二味地黃湯 18.地黃白虎湯 19.陽毒白虎湯 20.涼膈散火湯 21.忍冬藤地骨皮湯 22.熟地黃苦蔘湯 23.木通大安湯 24.黃連清腸湯 25.荊芥清腸湯 26.朱砂益元散 27.甘遂天一丸 28.輕粉甘遂龍虎丹 29.輕粉甘遂雌雄丹 30.乳香沒藥輕粉丸 32.白虎湯 34.猪苓湯 35.五苓散 37.腎氣丸 38.黃連猪肚丸 39.涼膈散 40.李氏涼膈散 43.生地黃湯 44.李氏導赤散 45.李氏肥兒丸 46.消疳飲 47.水銀蘆葦方	41 방
甲午本	48.靈砂散 經驗方 (17방) 64.防風通聖散 65.千金導赤散 66.柴胡瓜蔞湯 67.柴胡四苓湯 68.單白虎湯 69.渡海白虎湯 70.錦上添花白虎湯 71.猪苓白虎湯 72.八味苦蔘湯 73.七味猪苓湯 74.八味猪苓湯 75.水火既濟湯 76.清涼散火湯 77.木通苦蔘湯 78.柴胡清腸湯 79.白虎湯腎 80.白虎益元散	18 방
出典未詳	5.黃連導白散 31.輕粉乳香沒藥丸 33.黃白虎湯 36.四苓散 42.花惜地黃湯 49.豚卵散 50.點眼散 51.催生散 52.大甘遂散 53.小甘遂散 54.歸腎解語湯 55.新小柴胡湯 56.新大柴胡湯 57.玄蔘白虎湯 58.降陰白虎湯 59.表症白虎湯 60.地黃玄武湯 61.通乳歸腎湯 62.保胎地黃湯 經驗方 (10방) 63.玄蔘敗毒散 81.少陽補胃湯 82.地黃敗毒散 83.地黃湯 84.贊化丹 85.加味地黃湯 86.加味散火湯 88.兩儀煎 89.薄荷煎 90.加味地黃湯	30 방
草本卷	41.六味地黃湯	1방

本』에 收錄되어있는 處方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 『四象新編』이 東武 李濟馬의 著作인데 出版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元持常이 出刊했을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假定이 事實이라면 出
典未詳으로 分類된 處方들도 東武 李濟馬의 處方
中 현재는 亡失된 處方들일 可能性이 있다.

丑 12. 太陰人 處方中 處方名 新設한 경우

壽世保元 內容	四象新編 處方名
太陰調胃湯 加栲根皮一錢※참고 ;『四象新編』에는 加 栲根皮 二錢으로 되어있다.)	TE.4 固氣調胃湯
太陰調胃湯 加升麻黃芩	TE.8 升芎調胃湯
熱多寒少湯 加大黃一錢	TE.19 清肺瀉肝湯
大便每日不秘則 加龍骨 減大黃	TE.20 定神瀉肝湯
寒多熱少湯 加鱗鱗五七九箇	TE.22 鱗鱗敗毒散
大便燥者 必用 葛根大黃 等屬	TE.23 潤肺清肝湯
補肺元湯 加山藥 薏苡仁 蘿蔔子 各一錢則 尤妙	TE.30 山藥補肺元湯
總計 ; 7 處方	

丑 13. 少陰人 處方中 處方名 新設한 경우

壽世保元 內容	四象新編 處方名
本方(赤白何烏寬中湯) 加厚朴 枳實 木香 大腹皮 各五分	SE.24 十二味寬中湯
本方(人蔘陳皮湯) 以炮乾薑 易生薑 又加桂皮一錢	SE.34 人蔘桂皮湯
(理中湯) 加陳皮 官桂 白何烏	SE.48 何烏官桂理中湯
少陰人浮腫 羶肝一部 切片作膾	SE.70 鎮陰膾
少陰人浮腫 有醫 教以服海塩自然汁日半匙	SE.71 保命飲
少陰人痢疾 有醫 教以服項赤蛇煎湯	SE.72 赤巳煎
少陰人痢疾 有醫 教以大蒜三顆 清蜜半匙	SE.73 蒜蜜符
少陰人一人 滿身有瘡 以人蔘末 塗傅 卽效	SE.74 人蔘散
少陰人乳傍近脇 發內癰 有醫 教以火針取膿	SE.75 如意針
少陰人 背癰 有醫 教以火刀裂瘡	SE.76 如意刀
嘗見少陰人半身不遂病 有醫 教以服鐵液水 得效	SE.77 不遂飲
總計 ; 11 處方	

丑 14. 少陽人 處方中 處方名 新設한 경우

壽世保元 內容	四象新編 處方名
咳嗽 (荊防地黃湯) 加前胡	SA.10 前胡地黃湯
血症 (荊防地黃湯) 加玄蔘 牧丹皮	SA.11 玄蔘地黃湯
偏頭疼 (荊防地黃湯) 加黃連 牛蒡子	SA.12 黃連地黃湯
食滯痞滿 (荊防地黃湯) 加牧丹皮	SA.13 牧丹皮地黃湯
有火者 (荊防地黃湯) 去山茱萸 加石膏	SA.14 降火地黃湯
頭痛煩熱與血證者 (荊防地黃湯) 用生地黃	SA.15 生熟地黃湯
荊防地黃湯 加木通二三錢	SA.16 木通無憂湯
(黃連清腸湯) 去木通 加荊芥一錢	SA.25 荊芥清腸湯
總計 ; 8 處方	

‘處方名이 新設된 경우’를 살펴보면, 太陰人에서는 固氣調胃湯을 비롯한 7處方, 少陰人에서는 十二味寬中湯을 비롯한 11處方, 少陽人에서는 前胡地黃湯을 비롯한 8處方이 있으며, 臨床에서 자주 言及되는 處方名인 太陰人의 淸肺瀉肝湯, 少陰人의 十二味寬中湯, 少陽人의 前胡地黃湯 등이 『壽世保元』에 記錄된 處方名이 아니라, 『四象新編』에 記錄된 處方名임을 알 수 있다<표12-14>(『壽世保元』本文에는 使用例만 記錄되어 있는데 『四象新編』에서 處方名을 붙인 경우에 ‘處方名 新設’로 分類하였으며, ‘處方의 出典’部分에서 出典未詳으로 分類하였던 處方

들은 이 部分에서 다시 分類하지 않았다.)

‘處方名이 變更된 경우’를 살펴보면, 太陰人에서는 皂角三黃湯을 비롯한 2處方, 少陰人에서는 當歸香蘇散을 비롯한 4處方, 少陽人에서는 荊防導白散을 비롯한 8處方이 있는데, 『甲午本』에서 引用한 處方만 處方名을 바꾸거나 아니면 『壽世保元』에서 引用한 處方만 處方名을 바꾸거나 하는 일정한 規則은 없었다<표15>(『四象劑方』에 記錄된 處方을 『壽世保元』 및 『甲午本』의 處方과 比較하여 藥物 用量에 차이가 있을 뿐 處方構成이 유사하고 處方名이 다른 것을 處方名 變更한 경우로 分類하였다.)

표 15. 處方名을 變更한 경우

體質	原處方名 (出典)	四象新編 處方名	비고
太陰人	皂角大黃湯 (甲午本)	TE.74 皂角三黃湯	處方構成 및 藥物 用量이 同一하다.
	黃栗櫟根皮湯 (甲午本)	TE.77 黃栗固氣湯	黃栗의 用量이 『甲午本』에는 一兩으로 되어있고, 『四象劑方』에서는 百枚로 되어있다.
總計 ; 2處方			
少陰人	芎歸香蘇散 (壽世保元)	SE.10 當歸香蘇散	『壽世保元』에는 甘草 대신 炙甘草를 使用하고 있다.
	官桂附子理中湯 (壽世保元)	SE.36 附子理中湯	處方構成 및 藥物 用量이 同一하다.
	白何烏理中湯 (甲午本)	SE.44 三白理中湯	『四象劑方』에서는 “白何烏 白朮炒 白芍藥炒 桂枝 乾薑炮 各三錢”으로 증량되고 附子가 追加되었으며, 大棗 二枚가 削除되어있다.
	寬中丸 (壽世保元)	SE.45 寬中湯	『四象劑方』에서는 陳皮가 削除되어있다.
總計 ; 4 處方			
少陽人	荊防瀉白散 (壽世保元)	SA.4 荊防導白散	『四象劑方』에서는 獨活이 削除되어있다.
	黃連豬肚丸 (壽世保元)	SA.38 黃連豬肚湯	『四象劑方』에서는 天花粉을 五兩으로 增量하고, 麥門冬은 去心후 用量을 一兩으로 減量하였다.
	生熟地黃丸 (壽世保元)	SA.43 生地黃湯	『四象劑方』에서는 生乾地黃이 生地黃으로 바뀌어 있다. 다른 用量은 同一하다.
	白虎湯 (甲午本)	SA.68 單白虎湯	處方構成 및 藥物 用量이 同一하다.
	木通大安湯 (甲午本)	SA.77 木通苦參湯	『甲午本』木通大安湯에서 苦參의 用量을 一錢으로 減量하고 羌活을 削除하면 『四象劑方』의 木通苦參湯이 된다.
	黃連淸腸湯 (甲午本)	SA.78 柴胡淸腸湯	處方構成 및 藥物 用量이 同一하다.
	白虎膏(甲午本)	SA.79 白虎湯膏	處方構成 및 藥物 用量이 同一하다.
	朱砂益元散 (甲午本)	SA.80 白虎益元散	『甲午本』에서 滑石을 二錢半, 朱砂를 一錢으로 增量하고 白虎膏를 一錢으로 減量하면 『四象劑方』의 白虎益元散이 된다.
總計 ; 8 處方			

‘東醫四象新編劑方에만 있고 本文에서 使用例가 없는 處方’들을 살펴보면, 太陰人에서는 麻黃調胃湯을 비롯한 6處方, 少陰人에서는 白何烏君子湯을 비롯한 18處方, 少陽人에서는 玄蓼地黃湯을 비롯한 12處方이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規則은 없었다<표 16>('四象劑方'에는 處方內容이 記載되어 있으나, '四象經驗', '用藥彙分', '經驗方 目錄' 部分에서 使用例가 없는 경우를 本文에서 使用例가 없는 處方으로 分類하였다.)

‘本文에 使用例가 있으나, ‘東醫四象新編劑方’에 處方內容이 記載되지 않은 處方’들을 살펴보면, 太陰人 處方의 경우 葛根蘿蔔子湯을 비롯한 17處方, 少陰人 處方의 경우 橘皮一物湯을 비롯한 12處方,

少陽人 處方의 경우 防風天花粉散을 비롯한 4處方이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規則은 없었다<표 17>('四象經驗', '用藥彙分', '經驗方 目錄'에 使用例만 있고, '四象劑方'에 處方內容이 없는 경우를 '四象劑方'에 處方內容이 記載되지 않은 處方으로 分類하였다.)

‘異名 同處方의 경우’를 살펴보면, 太陰人의 경우 補肺元湯을 비롯한 5處方, 少陰人의 경우 當歸白何烏寬中湯을 비롯한 10處方, 少陽人의 경우 歸腎解語湯을 비롯한 7處方이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規則은 없었다<표 18>('用藥彙分', '四象經驗', '經驗方 目錄'에 記錄된 處方名이 '四象劑方'에 記錄된 處方名과 서로 다르지만 같은 處方으로 봐야하는 경우

표 16. 東醫四象新編劑方에만 있고 本文에서 使用例가 없는 處方

體質	處方
太陰人 (總6方)	麻黃調胃湯(TE.3) 經驗升清湯(TE.13) 杏仁升清湯(TE.14) 皂角大黃湯(TE.33) 石菖蒲遠志散(TE.46) 李氏黑奴丸(TE.48)
少陰人 (總18方)	白何烏君子湯(SE.14) 升陽八物湯(SE.17) 香附十全湯(SE.19) 五靈脂寬中湯(SE.27) 蒜蜜湯(SE.29) 溫化丹(SE.32) 肉豆久附子理中湯(SE.41) 三白理中湯(SE.44) 薑付湯(SE.49) 赤石脂禹餘糧湯(SE.51) 大補湯(SE.52) 回陽大補湯(SE.53) 辟瘴散(SE.62) 三棗消積丸(SE.65) 秘方化滯丸(SE.66) 如意針(SE.75) 溫中飲(SE.78) 星香正氣散(SE.92)
少陽人 (總12方)	玄蓼地黃湯(SA.11) 輕粉甘遂雌雄丹(SA.29) 黃白虎湯(SA.33) 豬苓湯(SA.34) 五苓散(SA.35) 四苓散(SA.36) 腎氣丸(SA.37) 生地黃湯(SA.43) 李氏導赤散(SA.44) 玄蓼白虎湯(SA.57) 表症白虎湯(SA.59) 地黃玄武湯(SA.60)

표 17. 東醫四象新編劑方에 處方內容이 記載되지 않은 處方

體質	處方	總計
太陰人	葛根蘿蔔子湯 葛茸大補湯 蒙本黃栗白芷散 大承氣湯 萬應膏 無憂膏 西氏玉容散 承氣湯 神聖餅 神異膏 張母符 李氏調胃湯 一依三消分治 調胃脈元湯 調胃承氣湯 調中湯 菖蒲透邪湯	17
少陰人	寬中丸 橘皮一物湯 獨參湯 白朮散 李氏補中益氣湯 仁參桂枝湯 人參附子理中湯 人參附子理中湯 仁參十二味寬中湯 巴豆如意丹 八物湯 何烏八物湯	12
少陽人	防風天花粉散 肥兒丸 十二味歸腎湯 朱砂散	4

표 18. 異名 同處方

體質	本文處方名(四象劑方 處方名)
太陰人	肺補元湯(TE.29 補肺元湯) 一擦光(TE.54 歸腎一擦光) 升芎調胃湯(TE.8 升芎調胃湯) 太陰寒調胃湯(TE.1 太陰調胃湯) 菖蒲透邪煎, 菖蒲透邪湯(本文에만 등장하고 '四象劑方'에 未記載된 處方이다. 本文안에서 處方名을 혼용하고 있다.)
少陰人	九味花惜湯(SE.7 九味惜花湯) 芎歸黃蘇散, 芎歸香蘇散(SE.10 當歸香蘇散) 官桂湯, 官桂附子理中湯(SE.36 附子理中湯) 何烏理中湯(SE.43 白何烏理中湯) 仁參十二味寬中湯(SE.24 十二味寬中湯) 仁參何烏寬中湯(SE.25 人參白何烏寬中湯) 當歸十二味寬中湯(SE.26 當歸白何烏寬中湯) 升陽附子湯(SE.3 升陽益氣附子湯) 芎歸蒼蘇理中湯(SE.39 芎歸蘇理中湯) 砂仁煎(SE.93 砂仁散)
少陽人	歸神解語湯, 歸腎解語散(SA.54 歸腎解語湯) 牧丹皮地黃湯(SA.13 牧丹地黃湯) 六味腎氣湯(SA.55 新小柴胡湯) 荊防瀉白散, 荊防瀉白湯(SA.4 荊防導白散) 黃連導白湯(SA.5 黃連導白散) 生熟地黃丸(SA.15 生熟地黃湯) 少陽補胃湯(SA.81 小陽補胃湯)

를 異名 同處方으로 分類하였다.)

‘同名 異處方の 경우’를 살펴보면, 太陰人에서는 吉更湯(TE.87, TE.92)과 石菖蒲遠志散(TE.42, TE.46), 少陰人에서는 星香正氣散(SE.12, SE.92), 少陽人에서는 加味地黃湯(SA.85, SA.90)이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規則은 없었다(『四象劑方』에 記載된 處方中 內容이 서로 다른 處方인데도, 같은 處方名을 使用한 경우에 同名 異處方으로 分類하였다.)

‘東醫四象新編劑方에 處方名만 있고 內容이 記載되지 않은 處方’을 살펴보면 星香正氣散(SE.12)과 鎮陰胎(SE.70)가 있다. 이중 星香正氣散은 SE.92星香正氣散에 同名의 處方이 있으며, 鎮陰胎는 主治症의 內容을 參考해 볼 때 瘧肝을 지칭하는 것 같다.

‘東醫壽世保元에 處方內容이 없는 것을 東醫四象新編에서 記錄한 것’을 살펴보면, 薑朮寬中湯(SE.28)이 있다.

‘東醫壽世保元 處方內容에서 他 體質 藥物을 削除한 후 引用된 處方’을 살펴보면 太陰人에서 李氏黑奴丸을 비롯한 2處方, 少陰人에서 大補湯을 비롯한 6處方, 少陽人에서 四苓散을 비롯한 5處方이 있다<표19-21>. 이중에는 處方名 앞에 “李氏”라는 게 붙는 處方이 있는데, 이는 모두 『壽世保元』에서 東武 李濟馬가 “今考更定”이라고 記錄한 것에 依據하여 加減을 했을 때 處方名에 “李氏”를 붙였다. 하지만 “今考更定”에 依據하여 加減한 處方 모두에 “李氏”라는 表現을 붙이지는 않았다.

또한 『四象劑方』의 內容中 『四象新編』을 出版하

표 19. 太陰人 處方中 他體質 藥物을 削除한 후 引用한 處方

壽世保元 處方名	四象劑方에서 削除시킨 藥物	四象劑方 處方名
黑奴丸	今考更定 此方 當去芒硝	李氏黑奴丸
生脈散	今考更定 此方 當去人蔘	生脈散

표 20. 少陰人 處方中 他體質 藥物을 削除한 후 引用한 處方

壽世保元 處方名	四象劑方에서 削除시킨 藥物	四象劑方 處方名
十全大補湯	今考更定 此方 當去 白茯苓 熟地黃 當用 砂仁 陳皮	大補湯
蘇合香元	今考更定 此方 當去麝香 犀角 朱砂 龍腦 乳香 當用 藿香 茴香 桂皮 五靈脂 玄胡索	蘇合香元
溫白元	桔梗 石菖蒲 紫菀 皂角灸 (이상 太陰人 藥物) 黃連 柴胡 (이상 少陽人 藥物) ※參考; 赤茯苓만 削除하지 않았다.	溫白元
瘰癧丸	梔子 芒硝 豆豉 (이상 少陽人 藥物) 大黃 杏仁 (이상 太陰人 藥物)	瘰癧丸
如意丹	檳榔 柴胡 黃連 (이상 少陽人 藥物) 紫菀 桔梗 皂角 石菖蒲 (이상 太陰人 藥物)	如意丹
香砂 六君子湯	今考更定 此方 當去 白茯苓 當用 白何首烏	香砂 六君子湯

표 21. 少陽人 處方中 他體質 藥物을 削除한 후 引用한 處方

壽世保元 處方名	四象劑方에서 削除시킨 藥物	四象劑方 處方名
五苓散	白朮 肉桂 (이상 少陰人 藥物)	四苓散
涼膈散	今考更定 此方 當去 大黃 甘草 黃芩	李氏涼膈散
導赤湯	今考更定 此方 當去 枳殼 白朮 甘草	李氏導赤散
肥兒丸	今考更定 此方 當去 人蔘 白朮 山查肉 甘草 而使君子一味 未能經驗的 知藥性 故不敢輕論	李氏肥兒丸
消毒飲	今考更定 此方 當去甘草	消毒飲

는 과정이나 出典에 해당하는 書籍의 內容을 引用하는 과정에서 誤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部分들이 多數 發見되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太陰人 處方

(1) TE.8 無汗寒熱 加升麻黃芩 名○升芩調胃湯

[분석] 이는 升芩調胃湯의 誤字인 것 같다.

(2) TE.45 牛黃清心元 … 金箔 七十葉中 十葉爲衣 十葉蒸爲膏 烏梅

[분석] 『壽世保元』에서는 “金箔 七十箔內 二十箔爲衣 烏梅 二十枚 蒸取肉 研爲膏”라고 되어있는데, 『四象劑方』에는 “金箔 七十葉中 十葉爲衣 十葉蒸爲膏 烏梅”라고 되어 있다. 이는 出版過程에서의 誤謬이며 文章順序를 “金箔 七十葉中 十葉爲衣, 烏梅 十葉蒸爲膏”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

2) 少陰人 處方

(1) SE.33 人蔘陳皮湯 人蔘 一錢 生薑 砂仁 陳皮 各一錢

[분석] 『四象劑方』 人蔘陳皮湯의 人蔘 用量은 “一錢”이 아니라 “一兩”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四象劑方』 人蔘陳皮湯에서는 君藥이 人蔘인데도 불구하고 臣佐使와 같은 用量인 一錢으로 되어있다. 만약 『四象劑方』 人蔘陳皮湯의 用量構成이 맞다면, “人蔘 生薑 砂仁 陳皮 各一錢”으로 記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出典에 해당하는 『壽世保元』 『少陰人 新定方』 人蔘陳皮湯에서는 “人蔘陳皮湯 人蔘 … 兩 生薑 砂仁 陳皮 各一錢 棗二枚”로 記載되어있다. 따라서 『四象劑方』 人蔘陳皮湯의 “人蔘 一錢”이라는 內容은 『四象新編』을 編纂하는 過程에서의 誤謬로 생각되며 “人蔘 一兩”으로 變更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2) SE.35 人蔘吳茱萸湯 人蔘 一兩 吳茱萸 生薑 各三錢 白芍藥 當歸 蟾蜍 各一錢

[분석] 『四象劑方』 人蔘吳茱萸湯에는 蟾蜍가 쓰였는데, 蟾蜍는 「四象人藥」部分에서 太陰人 藥으로 分類한 藥物이다. 또한, 出典인 『壽世保元』 『少陰人 新定方』의 人蔘吳茱萸湯에서는 蟾蜍대신 官桂를 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四象劑方』 人蔘吳茱萸

湯에서 蟾蜍를 使用한 것은 『四象新編』 編纂過程에서의 誤謬이며 “以官桂 易蟾蜍”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3) SE.47 理中湯 人蔘 各二錢 白朮 乾薑 甘草 各一錢

[분석] 『四象劑方』 理中湯의 用量構成은 2가지로 解釋할수 있다.

① 원래 “人蔘 白朮 乾薑 各二錢 甘草 一錢”인데, 잘못 引用한 것이다.

: 일반적인 處方內容 記載 方式에 있어서 複數의 同用量 藥物을 使用하는 경우에는 해당 藥物들의 끝 部分에서 “各〇〇”로 用量을 記錄 한다. 『四象劑方』에서는 人蔘이 複數의 同用量 藥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人蔘 各二錢”으로 되어있다. 반면, 出典인 『壽世保元』 『少陰人 張仲景』의 理中湯에서는 “人蔘 白朮 乾薑 各二錢 炙甘草 一錢”이라고 하여, 複數의 同用量 藥物(人蔘 白朮 乾薑) 뒷 部分에 “各二錢”이라는 用量表示를 하고 있다. 따라서 『四象劑方』에서는 出版過程에서의 誤謬로 인해 乾薑 뒤에 記錄되어야 할 “各二錢”이라는 用量 表現이 人蔘 뒤에 붙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② “人蔘 各二錢 白朮 乾薑 甘草 各一錢”이라는 處方構成이 맞으며, 의도적으로 白朮, 乾薑의 用量을 減量한 것이다.

: 白朮, 乾薑의 用量을 減量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판단되어 處方의 用量 構成을 의도적으로 바꾸었는데, 出版하는 過程에서의 착오로 인해 人蔘 뒤에 “二錢”이라 표기하지 않고, “各二錢”이라 표기하게 되었다.

(4) SE.54 木香順氣散 治中風病 與人相漁 暴怒氣逆而 暈倒者

[분석] “漁(고기잡을 어)”는 “爭(다툼 쟁)”의 誤字이다.

(5) SE.62 霹靂散 煎去滓 和蜜冷服 須臾燥心 得汗而睡

[분석] “須臾燥心”은 “須臾躁止”의 誤字이다. 『壽世保元』에서는 “좀 있다가 답답한 증상이 멎고 잠을 자며 땀이 나고 낫는다.(須臾躁止 得睡 汗出差)”로

되어있는데, 「四象劑方」에서는 “증 있다가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땀이 나면 잠을 잔다.(須臾燥心得汗而睡)”로 되어있다. 霹靂散 處方の 용도를 고려해볼 때 『壽世保元』의 解釋이 올바른 것이고, 「四象劑方」의 解釋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須臾燥心”은 “須臾躁止”의 誤字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6) SE.66 秘方和滯丸 三稜 蓬朮煨 各二錢 半夏 木香 丁香 靑皮 陳皮 黃連 各二錢半 巴豆 醋浸一宿 六錢

【분석】「四象劑方」, 秘方和滯丸의 出典은 『壽世保元』「少陰人 宋元明」의 秘方化滯丸이며, 여기에서 “三稜 蓬朮煨”를 “各二錢”으로 減量하면, 「四象劑方」의 秘方和滯丸이 된다. 그런데, 『壽世保元』「少陰人 宋元明」의 秘方化滯丸에서 黃連은 少陽人 藥物이므로 引用할 때는 당연히 削除하여야 하는데도, 「四象劑方」에서 그대로 引用하였다.

(7) SE.69 香砂六君子湯 香附子 白朮 白茯苓 半夏 陳皮 厚朴 白荳蔻 各一錢 仁蔘 甘草 木香 縮砂 益智仁 各五分 薑三片 棗二枚

【분석】「四象劑方」, 香砂六君子湯의 出典은 『壽世保元』「少陰人 宋元明」의 香砂六君子湯이며, 여기에는 “去白茯苓 用白何首烏”라고 되어있다. 「四象劑方」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少陽人 藥物인 白茯苓을 그대로 使用하였다.

3) 少陽人 處方

(1) SA.5 (荊防導白散) 加黃連瓜蒌仁 名 黃連導白散 治胃熱裡熱 太陽大便一晝夜不通者

【분석】“太陽”은 “少陽”의 誤字로서 “少陽人이 一晝夜동안 大便不通이 있을때”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2) SA.32 白虎湯 石膏 五錢 知母 二錢 甘草 七分 粳米 半合

【분석】「四象劑方」, 白虎湯의 出典은 『壽世保元』「少陽人 張仲景」의 白虎湯이다. 여기에서 粳米는 太陰人 藥物인데, 『壽世保元』을 引用하는 過程에서 削除하지 않았다. 이는 編纂過程에서의 誤謬이며 削除되는 게 妥當하다고 본다.

(3) SA.35 五苓散 澤瀉 二錢半 赤茯苓 豬苓 白朮 各一錢五分 肉桂 五分

【분석】「四象劑方」, 五苓散의 出典은 『壽世保元』「少陽人 張仲景」의 五苓散이다. 여기에서 “白朮, 肉桂”는 少陰人 藥物이므로 削除시켜야 하는데도, 그대로 引用하였다.

(4)A.64 防風通聖散 滑石 生地黃 防風 石羔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薄荷 荊芥 惡實 山梔子 各五分

【분석】「四象劑方」, 防風通聖散의 出典은 『甲午本』의 防風通聖散이며, 『甲午本』에는 “滑石 生地黃 各二錢 防風 石苻 各一錢,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薄荷 荊芥 牛蒡子 山梔子 各五分”으로 되어있다. 『四象新編』 出版過程에서의 誤謬로 인해 藥物의 用量을 잘못 記載한것 같다.

5. 東醫四象新編에 收錄된 內容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推定

『四象新編』의 著者 兼 發行者가 元持常이라는 것에는 異見이 없지만, 『四象新編』에 收錄된 內容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3가지로 推定할 수 있다.

1) 東醫四象新編은 元持常의 創作이다.

『四象新編』은 元持常의 創作이라는 假定을 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根據는 다음과 같다.

(1) 현재까지, 韓醫學系에서 『四象新編』은 元持常의 創作이라고 여겨져 왔다.

(2) 『四象新編』을 編輯 出版한 것이 元持常이므로, 그 內容도 元持常의 創作일 可能性이 있다.

2) 東醫四象新編은 東武 李濟馬의 著作이다.

『四象新編』은 東武 李濟馬가 『壽世保元』에 記錄된 處方들의 活用度를 높이기 위해 『壽世保元』의 內容을 『方藥合編』, 『醫方活套』 및 『方藥合編』, 『活套 鍼線』의 編制와 유사하게 再編輯하여 직접 著述한 것으로서 亡失되었다가 元持常이 處方集을 구하게 되어 冊으로 出版한 것이라는 假定을 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根據는 다음과 같다.

(1) 『四象新編』에 收錄된 處方들의 出典을 살펴보면 『壽世保元』 및 『甲午本』에서 引用된 處方들이

大部分이며, 『四象辯論』 및 『四象經驗』의 내용은 『壽世保元』 原文을 요약 拔萃하여 收錄된 것이다. 특히, 『四象新編』의 「經驗方」 部分에 收錄된 處方들은 大部分 『甲午本』에 실려있는 處方들이다. 만약, 『四象新編』을 東武 李濟馬의 著作으로 假定한다면 「經驗方」 部分에서 出典末詳으로 分類된 處方들은 亡失된 東武 李濟馬의 處方들이라는 推定도 가능하다.

(2) 張鳳永의 長子인 月田 張遇聖의 證言에 의하면 元持常이 『四象新編』을 發行하기 전까지는 韓醫學에 대해 문의한이었다고 한다. 또한, 元持常의 女息인 元翁사 할머니와 外從孫인 변형덕도 元持常이 젊은 시절 사업을 하였다고 證言하였다. 이러한 生存人物들의 證言에 信賴性이 있다고 確言할 수는 없지만, 『四象新編』이 元持常의 創作이 아니고 기존에 存在했던 四象醫學 關聯 處方集의 單純 再編輯 일수도 있다는 假定을 排除할 수는 없다.

(3) 『四象新編』이 發行된 것은 李濟馬 死後 29年 만이다. 半世紀도 않되는 기간동안에 이러한 臨床書籍이 出版되려면 기존 東武 李濟馬의 處方集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3) 東醫四象新編은 後世醫家들의 作品이다.

『四象新編』은 東武 李濟馬 死後 元持常이나 後世醫家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收錄된 處方들은 單一 人物의 著作이라기 보다는 東武 李濟馬의 處方들에 여러 後世醫家들이 새로운 處方을 附加한 것이라는 假定을 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根據는 다음과 같다.

(1) 『四象新編』 序文에 보면 “日前에 號 成庵, 字 德必, 이름 元持常이라는 분이 四象醫學에 관한 經驗方을 얻어서 그 內容을 「壽世保元」과 比較 選別하여 內外篇으로 나눈후 이름을 「東醫四象新編」이라고 하였다.”(日元成菴德必甫 得其經驗方 選其壽世語 分爲內外篇 名之曰東醫四象新編)라는 內容이 記錄되어있다. 여기에서 『四象新編』은 元持常 이 여러 後世醫家들의 經驗方들을 收集하여 發行한 書籍임을 유추할 수 있다.

(2) 『四象新編』 原書의 表紙에는 冊名이 『東醫四象新編 附經驗方』으로 記錄되어 있다. 여기에서 元持常이 『四象新編』의 本文 部分을 作成할 때 參考한 書籍과 「經驗方」 部分을 作成할 때 參考한 書籍이 既存에 이미 存在하였고, 이러한 書籍들을 보기 쉽게 再編輯 한 것이 『四象新編』이라는 假定을 해 볼 수 있다.

(3) 『四象新編』 內容 中 『四象新編』을 出版하는 過程이나 出典에 해당하는 書籍의 內容을 引用하는 過程에서 誤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部分들이 多數 發見된다.

(4) 위에서 言及된 ‘處方名이 變更된 경우’, ‘東醫四象新編劑方,에만 있고 本文에서 使用例가 없는 處方’, ‘本文에 使用例가 있으나, ‘東醫四象新編劑方’에 處方內容이 記載되지 않은 處方’, ‘異名 同處方의 경우’, ‘同名 異處方의 경우’, ‘東醫四象新編劑方’에 處方名만 있고 內容이 記載되지 않은 處方’ 部分들에서 알 수 있듯이 『四象新編』의 內容에 있어서 一貫性이 결여된 部分들을 多數 發見하게 된다. 여기에서 『四象新編』이 어느 한 사람의 著作이 아니고 後世醫家들의 經驗方을 拔萃하여 再編輯한 書籍일 可能性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IV. 結 論

1. 『東醫四象新編』의 「東醫四象新編序」, 「東醫四象新編凡例」, 「東醫四象新編目錄」, 「跋」과 著者로 알려진 元持常, 序文을 쓴 張鳳永, 跋文을 쓴 南大熙에 대하여 研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元持常은 1885년에 出生하여, 1962년에 78歲의 나이로 餘生을 마쳤다. 『東醫四象新編』이 出版된 時期는 元持常의 나이 45歲때인 1929年이다. 元持常이 어떠한 경로로 四象醫學을 접하게 되었으며, 또한 東武 李濟馬와 交流가 있었는지 與否는 確認할 수 없었다.

2) 『東醫四象新編』의 序文은 張鳳永에 의해 陰曆 1928年 9月 8日 쓰여졌다. 元持常은 張鳳永 從祖父의 사위로서 張鳳永과 元持常이 서로 친

인척 관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 3) 跋文은 陰曆 1928年10月1日 南大熙에 의해 쓰여졌다. 栗下散人 南大熙라는 人物은 當時 여주군 밤골에 살았던 南台熙일 것으로 推測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2. 『東醫四象新編』의 編制 및 內容에 대해 研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東醫四象新編』은 內篇과 外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內篇에서 四象醫學의 原理論의인 部分을 說明하고, 外篇에서 病證에 따른 四象處方 運用에 대해 說明한 후 末尾에 「海松子論」, 「葛茸論」, 「血餘論」을 添附하였다. 內篇에 收錄된 文章들은 모두 『東醫壽世保元』에서 引用하였는데 「辨證論」이 가장 많이 引用되었으며, 「性命論」과 「廣濟說」은 한번도 引用되지 않았다.
- 2) 「四象辯論」은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 「擴充論」, 「醫源論」, 「辨證論」에서 四象體質 辨證에 필요한 部分을 引用한 것이며, 新用語를 使用하기도 하였다. 「四象經驗」은 四象人의 病證에 따른 處方에 대해 敘述한 部分이며 內容中 『東醫壽世保元』을 引用하는 過程이나 出版過程에서 誤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部分들이 多數 있다.
- 3) 「四象口訣」과 「通四象臟腑所在圖」, 「通四象全體所屬圖」는 四象人의 主要한 特徵을 形而上學的 概念부터 臟腑의 概念까지 간략히 정리한 후, 이를 暗記하기 쉽도록 圖表化 한 것이다.
- 4) 「四象人要藥」에 收錄된 體質別 藥物分類에 있어서 『東醫四象新編』과 『東武遺稿』가 相異하게 分類한 藥物은 10種類가 있다.
- 5) 「東醫四象用藥彙分」의 編制方式은 全體를 4段으로 구분한 후 最上段에는 病證을 羅列하여 豎看하도록 하고, 上統(太陰人) 中統(少陰人) 下統(少陽人)은 橫看하도록 하는 독특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編制方式의 淵源은 『方藥合編』 「醫方活套」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最上段의 病證 分類方式는 『方藥合編』 「活套鍼線」을 根幹으로 하였다.

3. 「東醫四象新編劑方」에 대해 研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東醫四象新編劑方」에는 總293個의 處方이 收錄되어 있으며, 이중 『東醫壽世保元』에서 引用한 것이 146處方, 『甲午本』에서 引用한 것이 44處方, 出典未詳인 것이 102處方, 『草本卷』에서 引用한 處方이 1處方이다.
- 2) 『甲午本』에서 引用된 處方은 總44處方이며 이 중 36處方이 「經驗方」 部分에 收錄되어 있다. 따라서, 「經驗方」에 收錄된 處方들중 出典未詳으로 分類된 處方들도 亡失된 東武 李濟馬의 處方일 可能性이 있다.
- 3) 「東醫四象新編劑方」의 特徵的인 部分들로는 「處方名을 新設한 경우」, 「處方名을 變更하여 引用한 경우」, 「『東醫壽世保元』 處方內容에서 他體質 藥物을 削除하여 引用한 處方」, 「『東醫壽世保元』에서 處方名만 등장하고 處方內容이 없었는데, 『東醫四象新編』에서 處方內容을 記錄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東醫四象新編劑方」의 編纂過程에서 一貫性이 缺如되었다고 생각되는 部分들로는 「『東醫四象新編劑方』에만 있고 本文에 使用例가 없는 경우」, 「本文에 處方名이 있으나, 『東醫四象新編劑方』에 處方內容이 記載되지 않은 경우」, 「異名 同處方」, 「同名 異處方」, 「『東醫四象新編劑方』에 處方名만 記錄하고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處方」 등이 있다. 또한, 「『東醫四象新編劑方』 內容中 原文 引用過程이나 出版過程에서 誤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部分」 들이 多數 發見된다.

4. 『東醫四象新編』에 收錄된 內容은 單一 人物의 創作이라기 보다는 元持常이 東武 李濟馬의 處方集을 포함한 多數의 四象臨床 關聯 處方集을 收集한 후 이를 보기 쉽게 再編輯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推定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假定이 事實이라면 『東醫四象新編』에 收錄된 處方들 중 어느 것이 東武 李濟馬의 處方이고, 어느 것이 後世 醫家들의 處方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研究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東醫四象新編』은 『東醫壽世保元』이나 『東武遺稿』, 『四象醫學 草本卷』等 東武 李濟馬가 직접著述한 記錄과는 다른 意味를 가지며, 四象醫學의 證治醫學的 應用을 위해 實用性和 活用性에 중심을 두어 編纂된 書籍이므로, 東武 李濟馬가 提示했던 四象體質 病證 運用精神을 看過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附經驗方. 京城 : 文友社. 昭和四年
2. 朴爽彦. 東醫四象大典. 서울 : 醫道韓國社. 1977
3. 李濟馬 著, 李道耕 譯編. 家庭必備 四象要覽 增補版. 3판 : 圓佛敎出版社. 1995
4.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改訂版. 서울 : 소나무. 1997
5. 廉泰煥. 東醫四象處方集. 再版. 서울 : 杏林出版. 1999
6.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再版. 서울 : 南山堂. 1996 : 67-117, 119-294
7. 신재용 編著. 方藥合編解說. 서울 : 신광문화사. 1993
8. 李濟馬 著, 梁병무 차광석 譯. 東武遺稿. 서울 : 海東醫學社. 1999
9. 李濟馬 原著, 金達來 編譯. 東醫壽世保元 草藁. 서울 : 圖書出版 鼎談. 1999
10. 李濟馬 著, 이순동 發行. 東醫壽世保元. 2판. 서울 : 驪江出版社. 1994
11.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12.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98
13. 尹報鉉·朴性植. 東醫四象新編의 著者인 元持常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 學會誌. 2000 : 12(2)
14. 原州元氏侍中公系族譜編纂委員會. 原州元氏族譜 增補六刊. 大田 : 回想社. 1985
15. 丹陽張氏大宗會大同譜廳. 丹陽張氏乙亥大同譜 八卷中 第八卷. 서울 : 起鍾族譜社. 1995
16. 琴章泰. 韓末 日帝下 韓國 性理學派의 思想系譜와 文獻에 관한 研究. 韓國 哲學思想의 諸問題. 1985
17. 李恒老. 華西集 : 李根元 柳重岳 編. 1899
18. 柳漢喆. 柳麟錫 義兵 研究. 國民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 學位論文. 1995
19. 李鐘尙. 毅岩 柳麟錫의 歷史認識에 關한 研究. 成均款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20. 姜在彦. 韓國의 近代思想. 서울 : 한길사. 1985
21. 洪淳利. 韓國의 民族思想. 서울 : 探求堂. 1975
22. 張工愚. 毅岩 柳麟錫의 抗日運動研究.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23. 張遇聖. 張諱壽永公影禎 1935년(107, 72.5) 작가소장 : 月田 張遇聖. 1판. 서울 : 지식산업사. 1981